

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[주요 FAQ]

-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외에,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최하는 우수기업 금융지원과 함께 중복 지원해도 가능할까요?

중복지원 가능합니다.

- 항공산업(관련)만 신청가능할까요?

항공산업과 관련한 업종의 경우 심사 시 일부 가점을 제공할 뿐, 해당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. 법인설립 3년 이상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다만, 본 사업은 해외진출을 도와 지원기업의 매출구조 확장을 목표로 진행되어, 제3세계에 대한 국제원조, 개발 등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은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- 코트라, 무역협회,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할까요? 가능하다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예산과 함께 사용가능할까요?

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신청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, 동일 예산항목이 아닌 경우 본 예산을 투여하여 사용가능합니다(사업비 관리 별도).

다만, 사전 지원받고 있는 정책자금의 사용 규정이 동일사업에 대한 타 사업자금 지원 불가일 경우에는 어려우며, 해당사항에 대한 확인의무 및 이로 인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정부 정책자금으로 해외 박람회 부스 이용료 지원, 본 예산으로 항공권 및 숙박비 지원 가능함을 의미하며, 동일항목을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, 추후 적발 시 환수조치 및 지원취소 될 수 있습니다

- 지역별 선정규모가 정해져있나요?

비수도권 우대사항은 있으나, 지역별 선정규모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. 심사기준 및 우대사항에 따라 상위 15개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.

○ 사업개발비(지원예산)에 자부담 의무비율이 정해져있나요?

선정기업에게 제공되는 사업개발비에 기업에서 부담해야하는 자부담 의무비율은 원칙적으로 없으며,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에 대한 증빙은 요구하지 않습니다.

다만 자본재 리스비의 경우에만 리스비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부담하셔야 하며 해당 경우 리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○ 아웃바운드 여행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웃바운드 상품개발 등의 사업계획으로 해외판로 개척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내국인의 해외여행 알선 수수료만을 매출구조로 가지고 있는 아웃바운드 여행업의 경우 해외진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. OTA 등 외국인 국내여행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여행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○ 선정이후, 사업개발비 중 해외개척 실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. 횡수제한이 없나요?

선정기업의 해외출장, 박람회 참가, 바이어 미팅 등 해외출장 발생 시 소요되는 숙박비, 항공료, 기타 실비를 지원하며, 인원 및 횡수 제한 없이 1천만원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다만 명확한 출장목표가 없거나, 외유성 출장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